

# ‘거품 논란’ 피해가기? ...미래에셋, 금호산업 매각 협상 불참

### 주당 5만9천원 과도한 금액 제시...호남 비판 여론 의식한 듯

### 박삼구 회장, 매입가 3만4천원 희망...2차례 협상 접점 못찾아

금호산업 매각가격으로 주당 가치 5만 9000원을 제시해 논란을 사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정자 금호산업 매각 협상엔 불참하고 있다. ‘과도한 금액’을 제시한 데 따른 부담감과 함께 호남지역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매각협상은 미래에셋의 참여 여부와 함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주장이 얼마나 관철될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2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융권에 따르면, 박 회장과 금호산업 채권단은 지난 31일 오후 두 번째 매각 협상을 가졌다. 양측의 입장 확인에 그쳤던 29일 첫 회의와 이날 회의에선 본격적인 가격 협상이 시작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 회장과 채권단의 이견 차이는 크다. 채권단은 지난 24일 미래에셋의 주당 아래 주당 5만9000원(1조213억원)을

박 회장 측에 매각가로 제시했다. 삼일·안진회계법인 등이 도출한 기업가치 주당 3만1000원(6000억원)에 90.3% 정도의 프리미엄을 붙인 가격이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인수 희망가로 주당 3만4000원(5470억원, 경영권 프리미엄 9.7% 포함)을 주장하고 있다. 미래에셋은 채권단에서 가장 많은 지분(지분율 8.5%, 의결권 14.7%)을 보유해 주당 5만9000원의 가격 제시를 주도했다. 하지만 미래에셋은 두 번째 회의까지 불참했다. 미래에셋은 산업은행 측에 당분간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으로 불참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지나치게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는 논란을 빚겨가기 위해 협상단에서 빠졌다는 추측이 나온다. 광주 출신의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동향 여론을 의식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 회장과 채권단은 8월 말까지 협상을 끝내야 한다. 미래에셋이 끝까지 불참할 경우 산업은행은 양측의 가격 차이를 최대한 좁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다른 채권은행의 경우 현재도 미래에셋이 내놓은 가격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매각가격이 1조원 대 아래로 내려갈 여지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호산업의 공개 매각 당시에도 호반건설이 유일한 응찰자

였다. 금호산업의 3차 매각은 합하다는 게 시장의 의견”이라며 “과도한 가격을 제시해 매각이 늦어지면 채권회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M&A(인수합병) 시장에서의 수의계약 사례를 보면 경영권 프리미엄은 시가 대비 20% 수준이다. 이에 비해 미래에셋이 제시한 주당 5만9000원은 지난 28일 금호산업 주가 1만8200원에 경영권 프리미엄 324%를 반영한 가격으로 일반적인 경영권 프리미엄 20%대비 16배를 초과한다. 동종 건설업체 주가시세와 견줘봐도 높은 가격임을 알 수 있다. 지난 31일 증가기종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국내 2

위인 현대건설이 3만4400원, 3위 대우건설은 6900원, 5위인 지에스건설이 2만6100원을 감안하면 17위인 금호산업의 1만8000원대의 주가, 3만1000원의 실사 가격은 상위 건설사와 비교했을 때 결코 낮지 않은 가격이다. 박 회장은 협상에서 금호산업의 시장 가치 평가를 내세워 미래에셋의 제시가격이 크게 부풀려졌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은행은 협상을 통해 조정가격이 마련되면 채권단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8월 기업경기 더 악화될 것”

### 광주·전남 업황·매출·자금사정 실사지수 전월비 하락

전국적으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극복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경기 상황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사업체 550개를 대상으로 한 7월 중 광주·전남지역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2로 전월대비 1포인트 떨어졌다. 8월 업황 전망BSI는 71로 전월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BSI는 기업이 느끼는 경기 상황을 지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밑돌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7월 매출BSI는 82로 전월 84에서 2포인트 하락했으며 8월 매출 전망 BSI는 82로 전월대비 1포인트 떨어졌다. 다행히 채산성BSI의 7월 실적은 83으로 전월대비 1포인트 상승했고, 8월 전망은 86으로 전월대비 4포인트 높았다. 7월 자금사정 BSI는 96로 전월대비 4포인트 하락했

며, 8월 전망 역시 95로 전월보다 5포인트 떨어졌다. 제조업의 경영여조사항으로는 내수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 경쟁심화 등의 순으로 여전히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 기업 업황의 불안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 업황BSI 역시 74로 전월대비 3포인트 하락했으며, 8월 업황 전망BSI는 77로 전월대비 4포인트나 떨어졌다. 7월 매출BSI는 74로 전월대비 1포인트 하락했으며, 2월 전망도 74로 전월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7월 채산성BSI는 84로 전월대비 3포인트 떨어졌으며, 8월 전망 역시 86으로 전월대비 5포인트나 하락했다. 7월 자금사정BSI는 88로 전월대비 3포인트 하락한 반면 8월 전망은 86으로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해 전월보다 긍정적으로 봤다. 비제조업의 경영여조사항으로는 내수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여행패션의 완성은 가방

2일 본격적인 바캉스철을 맞아 백화점 가방 매장에 여행에 필요한 백팩이나 솔더백, 트렁크 등이 선보였다. 가방 브랜드 킨링의 대표상품 가격은 솔더백 12만8000원~22만8000원, 백팩 15만5000원~22만8000원, 트렁크 21만8000원~39만3000원선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 대기업 61곳, 계열사 1674개

### 효성, 에프엠케이 등 2개사 등록...금호, 금호고속 등 4개 편입

효성이 이태리 스포츠카 페라리와 마세라티를 수입하는 에프엠케이 등 2개사를 계열사로 등록했다. 또,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최근 인수를 완료한 금호고속 등 4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지난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2015년 7월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현황’을 보면 이날 기준 대기업집단 61곳의 계열사는 총 1674개로 나타났다. 1개월 전 1686개에서 12개 감소한 수치다.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총 6개 집단이 13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효성은 에프엠케이와 갤럭시아미아미크로페이먼트

(온라인 결제 개발사) 등 2개사를 계열사에 편입시켰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과 속리산고속, 금호고속관광, 철도솔라 등 4개사의 지분을 취득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한화는 지난달에 이어 삼성과의 ‘빅딜’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두 곳을 편입해 사명을 각각 한화테크윈, 한화탈레스로 바꿨다. 롯데는 부동산개발업체인 롯데쇼핑타운대구를 새로 세웠다. 이 밖에 LG와 SK가 회사설립과 지분취득 등으로 총 4개사를 계열 편입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BUY 광주전남 우수 중기제품 홍보’ 신청 연장

### 중기중앙회, 21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형락)가 ‘2015 BUY 광주전남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사업’ 신청기간을 8월21일까지 연장한다. 중기중앙회와 지역 일간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신청한 회사 소개 및 제품 판매와 관련된 홍보 광고를 신문 기

사를 통해 독자에게 알리게 된다. 소요되는 광고비는 광주·전남도가 직접 부담하므로 신청 중소기업은 비용이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서 및 생산제품 사진 등을 이메일(jsr8820@kbiz.or.kr)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062-955-0038).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전력수요 역대 최고...예비 전력은 넉넉

연일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순간 전력수요가 여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발전기 준공 등으로 추가 예비전력이 넉넉하게 확보된 덕분에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31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3시 순간 전력수요가 7670만 kW(예비율 17%)로 치솟아 여름철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8일 전력수요 7618만kW(예비율 18%)를 기록해 중전 여름철 기준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7월25일 7605만kW를 넘어선지 3일 만에 다시 기록을 경신한 셈이다. 31일에는 전력수요가 7443만kW(예비율 21%)로 조금 낮아졌다. 겨울철까지 포함한 역대 전력수요 최고치는 지난해 12월17일 기록한 8015만kW다.

전력당국은 다음까지 본격적인 휴가철이 이어지기 때문에 당분간 전력수요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2 3 12 20 27 38	40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713,025,547	8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36,254,509	63
3 5개 숫자 일치	1,248,107	1,830
4 4개 숫자 일치	50,000	87,840
5 3개 숫자 일치	5,000	1,426,883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강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초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b>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b> 27-45세 <b>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b> 28-47세 <b>공무원(5급-9급)</b> 27-42세 <b>사법, 행정고시 합격자</b> VIP <b>삼성, 현대, LG 직원</b> 28-47세 <b>은행원, 연구원</b> 29-49세 <b>대(중,소)기업 직원</b> 27-48세 <b>사업가, 자영업</b> 29-39세 <b>세무사, 연구원</b> 29-48세 <b>국영기업체 직원</b> 29-39세 <b>교사, 교수</b> 28-49세	<b>전문직 희망 여성</b> 25-38세 <b>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b> 26-41세 <b>간호사, 유치원 교사</b> 27-42세 <b>의사, 약사, 교사</b> 25-39세 <b>변호사, 회계사, 변호사</b> 26-39세 <b>공무원(5급-9급)</b> 27-42세 <b>정부투자기관 직원</b> 25-38세 <b>간호사, 은행원</b> 26-47세 <b>학원(음악)원장, 교사</b> 27-42세 <b>스튜어디스, 영양사</b> 26-42세 <b>미스코리아, 미스전북</b> 27-36세	<b>의사, 변호사</b> 32-65세 <b>국영기업체 기관장</b> 52-66세 <b>공무원, 교사, 교수</b> 35-65세 <b>대기업 간부</b> 36-59세 <b>회사원, 자영업</b> 33-67세 <b>'무출신 여성' 희망</b> 31-58세 <b>VIP 희망 여성</b> 29-53세 <b>학원(음악)원장, 교사</b> 27-63세 <b>공무원, 교사</b> 32-58세 <b>간호사, 회사원</b> 29-48세 <b>자영업, 교사</b> 35-64세 <b>'무자녀 남성' 희망</b>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면층 70m 최신행 10도 8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는 신기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추소스 대산프리모